

《조선환여승람》에 끼어 있던 독자와 발행인의 편지들

하버드대 연칭도서관의 고서들 — 1

허경진 | 목원대 국어교육과 교수

하버드대 연칭도서관에 보관된 한국의 고서들 가운데는 당시의 출판계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들이 끼어 있어 흥미롭다. 1920년대에 보문사에서 간행된 《조선환여승람》이 대표적인데, 출판사 보존본에 끼어 있던 몇장의 엽서와 편지, 그리고 발행자의 공문 등을 통해서 당시 조상의 이름을 높이려는 후손들이 출판사를 상대로 벌인 여러 가지 재미있는 뒷이야기를 엿볼 수 있다.

미국 하버드대 연칭도서관의 고서들은 대부분 책갑 속에 보관돼 있다. 오래 돼 낡은 책들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다. 책갑 하나에 한두 책이 든 경우도 있지만, 열 책 정도 든 책갑들도 많다. 책 한 종이 이런 책갑으로 열댓 개 되면 백 책이 넘는 셈이니, 글자 그대로 방대한 분량의 책이다. 지리지 가운데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과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의 책갑이 열 개 정도 된다.

이병연이 개인적으로 편찬한 《조선환여승람》

이 두 책은 분량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이름도 비슷하다. ‘동국’과 ‘조선’은 같은 뜻이며, ‘여지(輿地)’와 ‘환여(寰輿)’도 같은 뜻이다. 둘 다 우리나라의 지리지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두 책은 성격이 아주 다르다. 시대적으로 450년 정도 차이가 있어, 아주 달라진 모습을 소개했다. 《조선환여승람》은 기본적으로 《동국여지승람》의 체제를 본받았기에 같은 내용도 실려 있지만, 450년 동안 달라진 모습, 특히 개화기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달라진 여러 지방의 모습들을 소개했다. 그러나 《동국여지승람》이 왕명에 의해 비매품으로 편찬된 것과 달리, 《조선환여승람》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보문사(普文社)라는 출판사에서 간행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이 책은 충청남도 공주에 살던 이병연(李秉延)이 1920년대에 자신의 재산을 들여 개인적으로 편찬하고, 공주군 목동 목동리에 보문사라는 출판사를 세워 간행했다. 이런 사연은 책 뒤에 붙은 판권에 밝혀져 있다. 당시에는 이미 활자본이 전국적으로 보급돼 있었지만, 그는 《동국여지승람》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 한지에 목판본으로 간행했다.

이 책은 전국 241개 군의 인문지리를 한 권에 한 군씩 소개한 지리지다. 큰 군은 300여면 분량이고, 작은 군은 100여면 분량이다. 그러다 보니 전체 분량이 방대해졌던 것이다. 그는 이 책을 편찬하기 위해서 《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여러 지리지와 읍지를 참조했으며, 지방마다 보고원을 위촉해 자세하게 만들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 한 개인의 재력과 인력으로는 이 많은 분량을 한 번에 간행할 수 없었으므로, 십여년 동안 여러 차례에 나눠서 간

행했다. 결국 이 책은 241개 군의 읍지를 다 간행하지 못하고, 129개 군에서 그쳤다. 그런데도 도마다 따로 책갑을 만들다보니 책갑이 열댓 개나 됐던 것이다.

출판사 보존본에 독자들의 편지 들어 있어

하버드대 연칭도서관에 소장된 《조선환여승람》 가운데는 표지에 “보문사 보존본” 또는 “영구 보존본”이라고 쓴 책들이 여러 권 있다. 본사에서 영구 보존하던 책들이 나중에 하버드대까지 건너오게 된 것이다. 이 책들을 보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연들이 실려 있다. 편집자가 책 본문에 덧붙여 쓴 내용도 있고, 책갈피 사이에 끼어 있는 사연들도 있다. 이런 사연들을 통해서 이 책이 어떤 목적으로 편찬되고, 어떻게 판매됐으며, 독자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

당시 우표가 아직도 붙어 있는 편지봉투 속에는 독자들의 항의도 들어 있고, 부탁도 들어 있다. 항의나 부탁이나 내용은 마찬가지인데, 자기들의 조상이 잘못 기록돼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쇼와 15년(1940) 6월 8일 소인이 찍혀 있는 전익형씨의 우편엽서를 읽어보기로 하자(필자가 간단히 번역해서 옮긴다).

“귀사(貴社)가 크게 평안하기를 비오며, 아뢰올 말씀은 (제가) 청구했던 《조선환여승람》을 우편소에서 찾아 읽어보니, 〈음사(陰仕)〉 항목에 기재한 전기역(全箕穰)은 소생의 조부인데, 어찌 전씨(全氏)를 김씨(金氏)라고 출판하셨나요? 이 장을 고쳐서 출판해 배포하기를 었드려 바라며, 가부간에 회답하기를 었드려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장차 언론(言論)…”

이 엽서는 여기서 끝나는데, 끝부분에 지면이 좁아서 쓰다가 말았다. 아마 “언론에 공개적으로 비판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인 듯하다. 우리나라 욕 가운데 가장 큰 욕이 “성을 갈 놈”인데, 자랑스러운 조부의 성을 전씨에서 김씨로 바꿨으니 손자의 입장에서 항의할 만도 하다. 이 책은 날권으로도 판

매했는데, 그는 자기 고장 이야기가 궁금해서 샀다기보다 자기 할아버지의 이름이 실린 것을 자랑삼아 보관하려고 샀을 테니, 향의 편지를 보내고 협박할 만도 하다.

이밖에도 선조의 이름이 틀렸다는가, 할아버지와 손자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편지가 많다. 그래서 담양군 읍지 장23 앞면에는 교정지가 끼어 있다. 즉 초판에는 이충절(李忠節)이 앞에 실리고 이식근(李植根)이 뒤에 실렸는데, 이충절의 이름 위에는 붉은 글씨로 “손(孫)”이라 썼고, 이식근의 이름 위에는 “조(祖)”라고 썼다. 그리고 그 위에 석 줄만 새로 판을 짜서 인쇄한 교정지가 덧붙여 있다. 아마도 개정판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릴 듯하므로, 그 후손에게 보내기 위해 급하게 석 줄이라도 목판을 새겨서 인쇄한 듯하다.

그러나 이렇게 교정지를 보내도 분이 풀리지 않은 후손 가운데는 책을 인수하기를 거부하는 사태까지도 일어났다. 나주군 읍지 속에는 전기신씨가 보낸 향의편지와 보문사에서 해명한 우편엽서가 함께 들어 있는데, 보문사에서 보낸 우편엽서는 “잘못된 내용을 즉시 고쳐서 우편으로 보냈는데, 왜 반려했느냐?” 하는 내용이었다. 전기신씨의 편지봉투 앞면 우표에는 쇼와 14년 7월 1일 소인이 찍혀 있고 뒷면에는 7월 2일 소인이 찍혀 있어, 당시 우편사정이 상당히 좋았음도 알 수 있다. 보문사에서 전기신씨에게 보냈던 해명 엽서가 출판사 보존본 안에 들어 있는 것을 보면, 그는 교정지를 보고도 분이 안풀려 해명 엽서를 수취 거절한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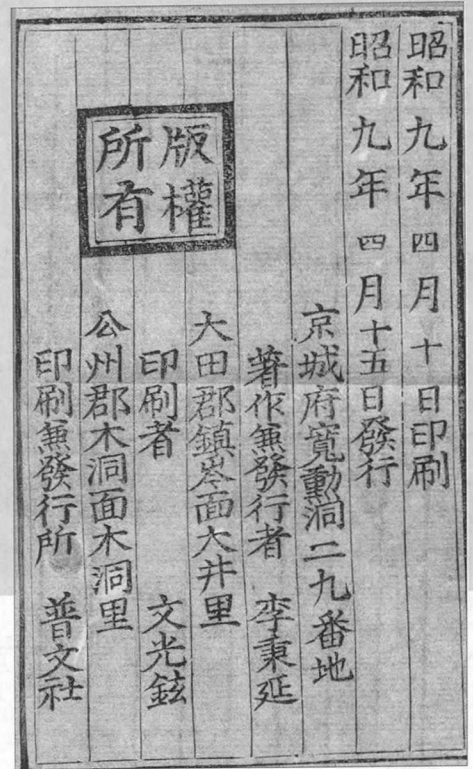
이 책은 분량이 워낙 많아, 서점에서 구색을 갖추 팔기 힘들었다. 그래서 대부분 우편으로 주문하고, 우편으로 발송했다. 족보와 문집을 발간하는 목적이 조상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지리지에 조상의 이름이 실린 것은 아주 큰 영광이었다. 그래서 조상의 이름이 실린 책은 후손들이 대부분 살 것이라고 생각해 이 책을 출판했고, 그런 예측이 들어맞아 이 책은 잘 팔렸다. 어떤 마을에 이 책이 한 권 들어가면, 다른 집에서도 자기 조상의 이름이 실린 책을 간직하기 위해 주문했다.

나주군에 살던 나기룡씨가 쇼와 14년 6월 30일에 부친 편지봉투 안에 “귀사에서 출판하신 《조선환여승람》이 아직도 여분이 있으면 《나주군》편만 대금인 환(代金引換)으로 보내주십시오”라는 내용의 편지가 들어 있는데, “차질없이 대금을 송납하고자 하오니” “천만(千萬) 복원(伏願)하나이다”라고 끝맺었다. 이 편지를 보면 우편으로 주문하고 대금도 우편으로 보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고객이 상당히 겸손한 태도로 상품을 주문했던 것도 알 수 있다.

해적판도 나돌아

그러나 모든 고객들이 책값을 제대로 부친 것은 아니었다. 책값을 부치지 않고 떼먹은 경우도 상당히 많고, 주문한 뒤 반려했던 경우도 많아, 출판사에서는 내용증명통지서를 인쇄해 놓고 번번이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보문사주임 이병연의 명의로 작성된 내용증명서에 “비사(鄙社)에서는 귀하로 인하여 피해가 적지 않으니, 부득이 계약에 의해 장차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청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구절이 들어 있다.

이 책이 조상을 빛내기 좋아하는 후손들에게 널리 팔리자, 해적판이 나돌았다. 이병연이 발행자 명의로 전라남도 화순군의 문묘(文廟) 직원과 유림



1920년대 이병연이 보문사를 세워 간행한 《조선환여승람》의 판권면. 《동국여지승람》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 한지에 목판본으로 간행했다.

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누군가 화순군 읍지 제11장을 마음대로 고쳐 인쇄해서 바꿔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지하허인(不知何許人)이 해책자중(該冊子中) 제십일장(第十一張)을 자의개인(自意改印) 야 귀관내(貴管内) 각처(各處) 분질책자(分軼冊子)에 환삽(換插) 다”고 했으니, 이 사람은 영업목적으로 책을 고쳐 찍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자기 조상의 기록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든지, 역적이나 죄인으로 올라 있는 것을 고친 듯하다. 다른 후손들이 출판사에 향의편지를 보내 “잘못된 기록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은 그럴 수도 없었던 내용인 듯하다.

이병연으로서는 판권 또는 지적 재산권이 훼손당한 셈이다. 그래서 독자들에게는 “그런 내용에 속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그 자를 경찰서에 고발해 체포해서 처벌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출판사 보존본에 끼어 있던 몇 장의 엽서와 편지, 그리고 발행자의 공문 등을 통해서 당시 출판계의 상황, 특히 조상의 이름을 높이려는 후손을 상대로 한 출판계의 내막을 환히 알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